

게임대국 꿈꾸는 방준혁

(넷마블 의장)

플랫폼 확장
자체 IP 육성
AI 게임 개발
신 장르 개척

4종 무기로 中 극복

글로벌 빅마켓 시장 잠식 우려 표해
AI 서비스 엔진 '콜럼버스' 고도화
실사형 시네마틱 게임 'BTS 월드'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환경 개선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올해 추진할 핵심 전략으로 플랫폼 확장과 자체 지식재산권(IP) 육성, 인공지능(AI) 게임 개발, 신(新) 장르 개척이라는 4가지 무기를 꺼내들었다. 모바일 게임에서 벗어나 콘솔, 온라인 게임까지 영역도 확장한다.

방준혁 의장은 6일 구로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4회 'NTP(Netmarble Together with Press)'에서 "넷마블은 글로벌 메이저 게임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위해 빅마켓 공략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장변화와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겠다"며 자사의 올해 주요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NTP는 넷마블의 창업주인 방준혁 의장부터 권영식 대표 등 넷마블의 주요 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넷마블의 대표적인 행사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그간 NTP에서는 넷마블이 거둔 성과와 라인업, 글로벌 시장 공략을 포함해 '글로벌 파이어니어', 'RP



방준혁 넷마블 게임즈 의장이 6일 서울 신도림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넷마블 투게더 워드 프레스 행사에서 넷마블의 신작 게임의 특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G의 세계화' 등 주요 전략이 공개됐다.

이날 방준혁 의장은 그간 쌓아온 넷마블의 글로벌 성과와 함께 중국, 미국, 일본 등 글로벌 빅마켓의 시장 잠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방준혁 의장은 "넷마블은 지난해 연간 매출 중 54%를 해외 시장에서 기록했으며 텐센트, 넷이즈에 이어 글로벌 퍼블리셔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넷마블의 대표 게임으로 떠오른 '레볼루션'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올리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다만, 현 시점의 국내 시장을 상위 50위로 확대 분석해보면 해외 기업들이 60%를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준혁 의장은 "특히 중국 기업은 자본 경쟁력, 게임개발 역량 경쟁력, 스피드 경쟁력 등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 빅마켓에서도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며 "이제 중국 기업은 경계가 아니라 벤치마킹하고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넷마블은 ▲플랫폼 확장 ▲

자체IP 육성 ▲AI 게임 개발 ▲신 장르 개척 등 4가지 방향성을 내놨다.

우선 넷마블은 자체 IP와 개발 스튜디오 투자를 통해 콘솔 게임과 글로벌 게임 플랫폼인 '스팀(Steam)' 게임 개발도 적극 투자한다. 콘솔 게임으로는 넷마블의 자체 IP인 '세븐나이츠'가 닌텐도 스위치 타이틀로 개발된다. 콘솔 게임에 타이틀로 개발하고 있는 '리틀 레벨 인사이드'의 개발사인 니오스트림 인터랙티브도 지분 30%를 투자한다.

자체 IP 육성도 강화한다. 방 의장은 "2년 전에는 넷마블 내부에 좋은 IP가 없어 글로벌 시장에 자체 IP를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그 사이 IP가 잘 성장해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쪽에 반향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인기 게임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MMORPG

'세븐나이츠', 스톤에이지 IP를 MMORPG로 개발 중인 '스톤에이지MMORPG(가제)', 모두의마블의 차세대 글로벌 버전인 '리치 그라운드(가제)', 야구 게임 마구마구 IP를 확장하는 '극열마구마구(가제)', 넷마블의 인기 캐릭터 콩야를 활용한 '콩야 캐치마인드', '콩야 야채부락리' 등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AI 게임 개발로는 자사 AI 서비스 엔진인 '콜럼버스'를 고도화한다. 지능형 게임 개발을 위한 AI 게임센터 설립 및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북미 AI 팀 등도 오는 3, 4월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날 예정이다.

신 장르 개척으로 첫 선을 보이는 게임은 글로벌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영상과 화보를 활용한 실사형 시네마틱 게임인 'BTS 월드'다. 이날 깜짝 공개된 BTS 월드는 방탄소년단 멤버를 육성하는 시뮬레이션 장르로 개발되며 1만장 이상 독점 화보와 100개 이상 스토리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슈가 된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일하는 문화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방준혁 의장은 "사업영역 확대로 빅마켓 공략에 총력을 다하고 넷마블문화재단 출범 등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대한민국 대표 게임회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넷마블은 이날 지난해 매출 2조 4248억원, 영업이익 5096억원, 당기순이익 362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한 뒤 2년 만에 매출 2조원대를 기록한 셈이다. 특히 4분기 해외 매출은 4181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넷마블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54%, 총 1조3180억원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렸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춘천 데이터센터 기공… 클라우드 사업 옮기

삼성SDS 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
차세대 기술인 SDDC로 운영돼

삼성SDS가 6일 강원도 춘천시 칠곡동에서 춘천 데이터센터 기공식을 열고 클라우드 사업 강화에 나섰다.

삼성SDS 춘천 데이터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갖춘 데이터센터다.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축구장 크기 5.5배인 3만9780m² 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금융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고효율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춘천 데이터센터가 완공되면 삼성SDS는 기존 미국·독일·인도·브라질 등 해외 데이터센터와 함께 국내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강화해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진용을 갖추게 된다.

춘천 데이터센터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가상화하여 소



삼성SDS 홍원표 대표이사 사장이 춘천시 칠곡동에서 열린 삼성SDS 춘천 데이터센터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삼성SDS

프트웨어로 자동 통합 관리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기술인 SDDC(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로 운영된다.

삼성SDS는 최근 아마존, MS, 오라클, 버투스트림, 스팟인스트 등 클라우드 선도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최첨단 클라우드 기술을 확보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삼성SDS 홍원표 대표는 "춘천 데이터센터는 시스템 성능과 효율성에서 국내·외 최고의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데이터센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흥미로운 장밋빛"... LG 'V30 라즈베리 로즈' 인기

V30 전체 판매량의 35% 차지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V30'에 새로 선보인 라즈베리 로즈 색상이 인기를 얻으며 컬러마케팅이 성과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월 22일 V30의 다섯 번째 색상으로 라즈베리 로즈 모델을 출시했다.

6일 LG전자에 따르면 V30 라즈베리 로즈 모델은 지난 1월 V30 전체 판매량의 35%를 차지했다. V30의 1월 판매량도 라즈베리 로즈에 힘입어 전월 대비 5% 증가했다. 각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올해 상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판매량을 늘린 것이다.

라즈베리 로즈는 기존에 없던 강렬한



채도의 새로운 레드 계열 색상으로, 후면은 빛의 반사각에 따라 깊이 있는 붉은색 부터 생기발랄한 핑크빛까지 다양하게 표현된다.

미국 IT매체 GSM아레나는 최근 V30 라즈베리 로즈에 대해 "라즈베리 로즈 색

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영상이나 사진으로도 전달하기 매우 어렵다"며 "최근에 본 색상 중 가장 흥미로운 장밋빛"이라 고 호평했다.

LG전자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여성 고객들이 V30 라즈베리 로즈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모로칸 블루, 클라우드 실버, 오로라 블랙, 라벤더 바이올렛 등 기존 색상은 남녀 구매고객 비율이 거의 비슷했지만 라즈베리 로즈는 여성 구매비율이 약 70%로 나타났기 때문.

LG전자는 라즈베리 로즈 색상을 'G6'에도 적용, 이달 중순 출시해 인기몰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대로 즐기는 세련된 색상을 계속 추가할 방침이다.

/오세성 기자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듀얼카메라' 적용

삼성전자, 듀얼카메라 솔루션 공개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듀얼 카메라가 적용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아이소셀' 이미지센서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합해 보급형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듀얼카메라 솔루션을 6일 공개했다.

듀얼 카메라는 스마트폰 후면에 내장된 두 개의 센서가 각각 받아들인 빛 정보를 조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은 사진을 찍게 해준다. 뛰어난 아웃포커싱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듀얼카메라는 빛 정보를 조합하기에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필요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솔루션을 통해 이미지처리(ISP) 성능이 낮은 보급형 AP에서도 연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보급형 스마트폰에서도 듀얼 카메라를 채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제공하는 듀얼 카메라 솔루션을 통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가 달라 이미지센서의 성능을 최적화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n@